



가계의 유동성 관리 요령

신용위험 대비 예비자금 반드시 확보

“기업 은행·정책자금 편향 대체 자금원 확보 급하다”

김감위장 상의 조찬 강연 윤증현 금융감독 위원장은 21일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권 이외의 대체 자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증현 금융감독 위원장은 21일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권 이외의 대체 자금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회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이 은행 대출과 정책자금에 편향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은행과 정책자금 등 한정된 자금이 모두에게 공급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 증액과 부동산 담보에 힘입어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났지만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들이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에서 벗어나 주식,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이를 통해 안정적 투자자금을 저비용으로 확보하고 경제 전체적으로 신용위험을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산할 수 있게 된다”며 “이 경우 직접 금융, 간접금융, 벤처캐피탈 등 자금조달 시장이 자연스럽게 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근 전복을 연고로 한 중견 건설업체인 (주)신일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연쇄 도산에 대한 우려감이 증대되고 있다. 분양 신청을 한 입주예정자들은 (주)신일 이 대한 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까닭에 돈을 떼일 염려는 없었지만 입주 지연이나 중도금 무이자 조건 폐지 등과 같은 조치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중견건설사들의 부도가 재무상태가 좋은 상황에서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따른 ‘흑자부도’라는 데 있다.

무리한 지출·환금성 낮은 투자 피해야 자신의 소득에 대한 예측 관리도 중요

(주)신일의 경우 2006년 매출액 4천 687억원에 순이익이 180억원에 달했으며, 2005년에도 매출액 4천14억원에 순이익이 247억원이었다. 매출액의 1%에 불과한 50억원에도 못 미치는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가 된 것이다.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시장예측 실패가 무리한 사업 확장에 이어졌고, 미분양 주택 증가 및 잔금 연체와 같은 위험에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유동성 위기가 결국 부도의 한 원인이 됐다. 긴급예비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가 왔고 채권의 신용등급이 낮아져 자금조달 자체도 원천적으로 차단되다 보니 이를 견디지 못한 것이다. 가정경제도 이와 마찬가지로의 일리에서 위험관리가 중요하다. 개인의 유동성 관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은 소득원 관리, 지출 관리, 신용관리, 긴급예비자금의 확보다. 고정소득에 대한 확실성이나 환금성에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신용을 관리하고 긴급예비자금도 확보

하고 있어야 한다. 재무상태를 하다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맞벌이를 하면서 대출금액을 높여 분수에 맞지않은 주택을 구입했는데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월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이자를 연체하거나 또 다른 대출을 받으므로써 재무건전도 악화 및 신용등급 하락에 이르는 상황은 흔한 일이다. 문제는 지출을 통제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득에 대한 예측 불확실이나 환금성에 낮은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누구나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부채가 부채를 낳고 신

용등급 하락이 대출한도를 축소해 결국엔 돈 줄이 막혀 신용불량에 이르게 된다. 은행의 문턱이 높아지고 신용불량자들이 양산되면서 성인 5명중에 1명 꼴로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통계가 있다. TV에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대부업 광고와 5만개가 넘는다는 대부업체 수를 보면서 개인들의 유동성 위기가 불러오는 서민층의 붕괴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긴급예비자금 확보, 소득에 대한 예측, 지출에 대한 관리, 합리적인 투자의 기준을 유지해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일시적인 재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TNV이비아이/IFP팀장)

기업 66% “준법경영 어렵다”

매매모호한 법규정 등 15%가 처벌 받아

상의 280개사 조사 경기지역의 중소기업 조업체 4사(社)는 공장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문제로 항의하자 공장 둘레에 소음차단막을 쳤다가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회사대표와 회사가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처럼 복잡하고 매매모호한 법규정과 현실을 무시한 ‘지킬 수 없는’ 법조항 때문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법을 어기게 되는 기업들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상의는 21일 발표한 ‘기업관련 처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280개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준법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기업이 66.1%에 달했다면서 “처벌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준법경영의 여건부터 조성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상의의 조사에서 준법경영에 애로가 있다고 밝힌 기업들은 그 이유를 ‘법규정의 모호함’(36.5%), ‘사전 홍보 및 지도부족’(31.2%), ‘기업현실에 맞지 않아 지키기 어려움’(25.9%) 등 순으로 들었다. 2003년 이후 행정제재 혹은 민·형사 처벌을 받은 기업은 15.0%에 달했다. /연합뉴스

론스타, 외환銀 지분 매각 추진

블룸버그 보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의 11.3%를 11억달러(한화 1조197억 원) 상당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64.62%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분 매각 작업을 진

행하고 있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펀드매니저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밝혀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메일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7천309만주를 주당 1만3천150~1만3천750원의 가격에 처분할 예정이다. 외환은행은 이날 전일대비 1.68% 하락한 1만4천600원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보해양조 복분자주 프랑시스 호평

17~21일 프랑스 보르도 전시센터에서 열린 제13회 빈 엑스포(VINEXPO) 2007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보해양조의 복분자주를 시음하고 있다. 복분자주는 유럽 정통와인의 텃세 속에서도 ‘동양의 신비’를 담고 있는 와인’으로 호평을 받으며, 외국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보해양조 제공)

“기업 실적·경기 회복에 비해 주가 상승 너무 빠르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

김석동 재경부 차관 제1차관은 21일 “최근 증시가 짧은 시간에 가파르게 상승해 상장기업 실적이나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빠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책브리핑에서 “최근 증시 상승세는 중장기적 상승 흐름의 일부로 이해 가능하나 시중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데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5월 이후 개인의 주식매수가 확대되면서 신용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개인의 신용거래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시중 유동성과 관련해 김 차관은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급격한 증가대출 증가로 추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용도 외 유용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신도시 발표 이후 토지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11·15, 1·11 대책 등을 통해 밝힌 토지보상금 관리 방안을 엄격히 집행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토지 보상금 지급시기 분산”

건교부 차관, 인근 부동산 유입 악영향 우려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21일 토지 보상금 지급시기를 분산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부천 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에서 풀리는 보상자금을 추적 관리해 인근 부동산시장으로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면서 “보상금 지급시기를 분산하거나 보상금 금융기관 예치시 상 업용지 제공 등 인센티브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건교부는 보상금 수령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내역 정기조사, 대토용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보상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2기신도시에서 막대한 보상비가 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차관은 동탄2신도시 개발발표 이후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이미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수도권 내부적으로는 다수의 중핵적인 거점도시를 육성해 지역간 주거수준 격차를 완화하는 게 수도권 부동산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동탄2신도시를 ‘쾌적성, 자족성, 편리성’을 갖춘 신개념 자족도시로 개발해 서울 등에 밀집된 기능을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대체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 30대 남녀 59%

“디지털 인맥 있다”

20, 30대 성인남녀의 59%는 인터넷 활동을 기반으로 형성된 ‘디지털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은 최근 자사 회원 중 20, 30대 1천344명을 상대로 ‘디지털 인맥이 있는가’를 묻은 결과 59.2%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45.2%, 남성의 38.1%가 디지털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디지털 인맥을 통해 실제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78.8%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증권사, 주식 신용융자 중단

대우·키움 등... 융자한도 축소·증거금을 상향도

금융감독당국이 주식 신용융자 제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신용융자 서비스를 손을 대기 시작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이 이날부터 일부 신용융자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으며 키움증권은 22일부터 신규 신용융자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대신증권과 삼성증권, 국토부신한증권, 동양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융자한도를 줄이고 증거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용융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앞으로 손질할 예정이다. 대우증권은 최근 신용대출 잔고에 크게 증가하면서 증시 조정에 따른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일부 신용융자 서비스를 잠정 중단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증권사는 고객 보유현금의 최대 2.5배까지 대출해주는 ‘기본형’ 신용 서비스는 유지했으나, 고객의 매수가능력(현금+대용증권)의 최대 3.3배까지 대

출이 가능한 ‘매매형’ 서비스를 이날부터 잠정 중단했다. 또 164개 종목의 신용융자 증거금을 30%에서 40% 상향 조정했다. 증거금을 높이면 해당 종목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키움증권도 최근 거래대금 증가 속도와 신용융자액의 급증 등을 감안할 때 주식시장이 단기 과열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면서 22일부터 신규 신용융자를 전면 중단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증권사는 또한 기존 신용융자제도를 보완해 개인별 한도를 축소하고 종목별 융자 한도를 신설하는 한편 신용거래 보증금률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정보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고객별 신용거래 적격 유무 및 한도 등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위험관리체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증권도 60개 종목의 증거금률을 40%에서 50%로 올렸으며 신용거래 가능 종목수도 1천183개에서 1천96개로 줄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광주공과대학원	[금]규정직기 여사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6/22	062-369-0790
(주)리애프리	비서, 회계간담원, 사무보조업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3	062-236-2364
신한유화(주)	생산업무 담당자 구인공고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6/24	062-944-8485
남선정보	고객 상담, 판매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25	062-234-2461
동양생명(주)본사	[TM1위-6월]고객상담원 200명 남녀 모집	고졸/경력무관	3400~3600	06/25	02-518-2769
한글과 컴퓨터 CO교육사업부	2007년 한글과 컴퓨터 방문선생님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5	062-373-5221
제이씨시스템(주)	IT 관련 영업관리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5	016-205-4229
(주)그린텔	KTF목포 멤버스플러지 정규직 상담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6/26	042-223-4900
효진전기(주)	일반사무와 자재관리 담당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28	062-373-8077
신성하이텍(주)	2007년 분야별 직원채용공고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30	062-952-1441
웨이이즈	[비보사] CM 및 MD/키보드/그래피커/상품기획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30	062-717-5018
(주)대용증권	생산직 사원모집(용접/프레스)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30	062-956-5191
이카프로넷	모델하우스 시공 감독원자 과정급 직원 모집	고졸/경력7년	회사내규	06/30	02-564-2992
(주)립인더스트리(광주지점)	신원파코호텔 조리부,제과,제빵 보조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2	062-228-8000

(광주직접리콜 512-6210 제공)

대우빌딩 1조원에 팔리나

모건스탠리 인수 유력

매각이 진행중인 서울역대우센터빌딩이 외국계 회사에 팔릴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센터빌딩의 최종 입찰에 참여한 5개사 가운데 미국계 금융회사인 모건스탠리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려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건스탠리는 빌딩 매각대금 8천억~9천억원에 대우빌딩 리모델링 공사비 2천억원을 포함해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빌딩을 신사옥으로 쓰려던 국민은행을 비롯해 함께 입찰에 참여한 코람코와 맥쿼리 등은 낮은 금액을 상대적으로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국내 빌딩 거래금액이 가장 큰 것은 2004년 말 론스타가 싱가포르투자청에 판매한 강남구 역삼동 강남 파이낸스센터(옛 스타타워)로 9천300억원이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이 오는 25일 리비아 출장을 떠나 30일 돌아오는대로 내달 초중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가 생명연구자원 통합관리

과기부, 내달까지 관련법 입법예고

바이오경제의 씨앗이자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국가자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다. 과학기술부는 22일 ‘생명연구자원 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고를 실시하는 등 문수령 과정을 거쳐 법안을 확정할 뒤,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가를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과기부는 22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관에서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생명연구자원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생명연구자원의 중요성과 법 제정의 필요성,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